서남권 발전을 위해 문화여건을 개선하려면 서남권 아우를 전략적·종합적 사고로 계획해야

문화시설, 시민은 즐기고 예술가는 창조성 발산하는 지역의 상징과 발전의 공간

문화시설은 시민이 문화를 느끼며 즐기는 공간이다. 더불어 예술인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며 새로운 창조성을 발산하는 공간이고, 때론 지역을 상징하고 이미지화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의 예술산업과 관련된 활동이 입지하는 클러스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문화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역 이미지가 달라지고, 시민의 생활도 달라진다. 문화시설은 시민의 삶과 예술가의 활동, 지역의 발전·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도서관 82% 차지해…다양한 예술시설·문화활동 어려워

서울의 서남권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한강 이남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권역으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가나다순) 등이 속한 지역을 말한다. 면적은 서울의 26.8%(162.46 km^2)를 차지하며, 인구수는 서울의 31.2%(2020년 기준 2,987,815명)에 달한다.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지역은 문화적 환경이 좋지 않다.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보면 1.56개로 서울시 평균 2.05개에 미치지 못한다. 면적 1km^2당 문화시설 수도 2.86개로 서울시 평균(3.25개)보다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서남권 문화시설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331개로 서남권 전체 문화시설의 71.2%를 차지한다. 이를 포함해 도서관 전체 수는 381개로 서남권 문화시설의 81.9%를 점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예술시설이 부족하다. 공연장은 35개로 서울시 전체의 8.5%에 불과하고, 미술관은 4개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활발한 문화활동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1] 서남권 인구/면적당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수		인구 1만 명당 수		면적 1km²당 수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서울시 전체	1,967	940	2.05	0.98	3.25	1.55
서남권	465	134	1.56	0.45	2.86	0.82
도심권	403	338	7.97	6.68	7.23	6.06
동북권	496	188	1.68	0.64	2.90	1.10
서북권	229	94	2.00	0.82	3.22	1.32
동남권	374	186	1.87	0.93	2.58	1.28

자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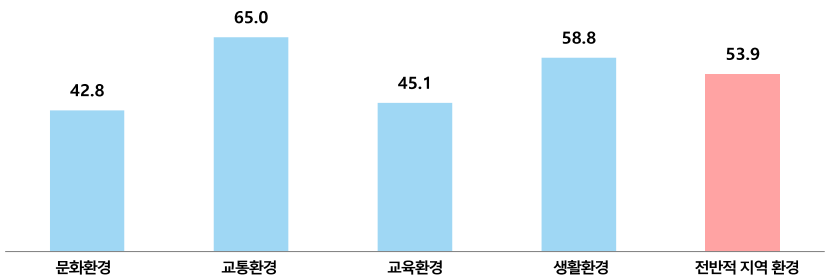
지역성 반영된 문화시설 부족, 클러스터 형성 되지 않아…전략적 개선 노력 필요

더구나 서남권에는 지역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도 부족하다. 공업단지로서 역사를 보여주는 시설은 〈G밸리산업박물관〉밖에 없고, 이주민의 역사와 문화활동, 지역 내 인구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도 없다. 더구나 각 문화시설은 지역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고, 문래창작촌 등 예술인이 집중한 지역에는 시설이 부족하며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 차원의 문제 대응보다는 장기적·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화환경 만족도 43%로 저조한 서남권 주민, 문화환경 개선 비전도 낮게 평가해

서남권 주민의 문화활동은 다른 권역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영화관람이 다소 높게 나오고, 예술교육 등 기초적인 예술활동이 다소 낮게 나왔을 뿐이다. 영화관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예술시설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이 느끼는 문화환경은 좋지 않다.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환경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2.8%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통시설 만족도(65.0%), 생활환경 만족도(58.8%), 전반적인 지역환경 만족도(53.9%)보다 낮은 수준이다. 45.1%

가 나온 교육환경 만족도와 유사할 뿐이다.



[그림 1] 분야별 및 전반적 지역환경 평가(동의응답 비율)-서남권 평균

게다가 문제는 문화환경 개선에 대한 비전이다. '문화적 발전 가능성'이나 '주민의 문화활동 여건 개선 노력', '역사성', '고유성', '유무형의 자원', '예술창작 활동' 등에서 다른 권역과 비교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남권 주민은 지역의 문화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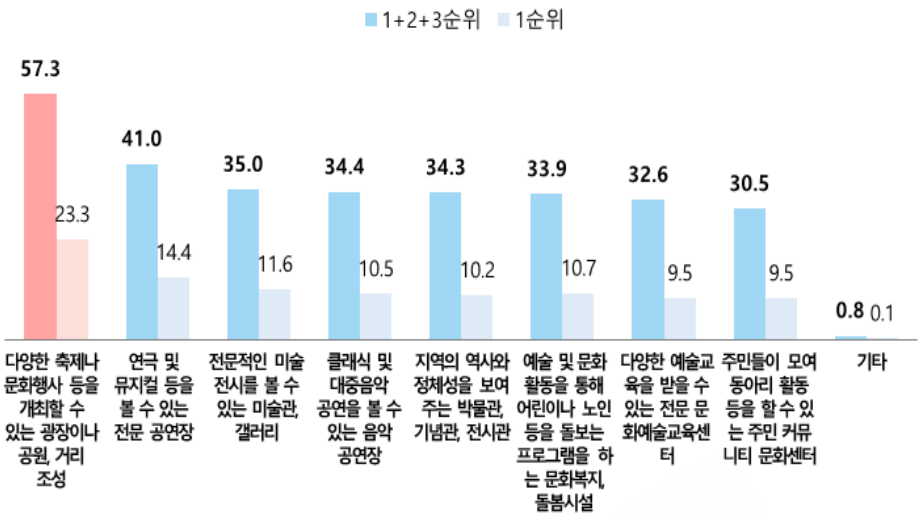
[표 2] 거주하는 자치구의 향후 문화 발전 여건과 의지(동의응답 비율)-권역 간 비교

권역	문화적 발전 가능성 있음	주민의 문화활동 여건 개선 노력	역사가 깊다	고유한 정체성 있다	자랑스럽다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 있음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발
서남권	54.2	41.9	41.1	36.4	35.6	34.8	31.7
도심권	57.1	52.9	57.1	54.3	48.6	52.9	48.6
동북권	55.5	46.4	48.2	43.6	39.1	42.7	29.1
서북권	67.3	55.5	47.3	53.6	47.3	50.9	41.8
동남권	72.7	57.3	55.5	48.2	54.5	60.0	50.9

시민은 광장·공원·거리 같은 일상공간 원하는데 자치구는 '도서관' 계획에 머물러

시민이 가장 원하는 문화시설은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 공원, 거리' 같은 일상공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연극 및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공연장', '전문적인 미술전시를 볼 수 있는 미술관 및 갤러리', '클래식 및 대중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문공연장'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문화공간과 예술시설이 우선 필요

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서남권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1+2+3순위)-서남권 평균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도서관이거나 '청소년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었다. 청년인구가 많은 관악구가 그나마 청년문화국을 설치하고 '청년문화존', '신림동 쓰리룸' 등 청년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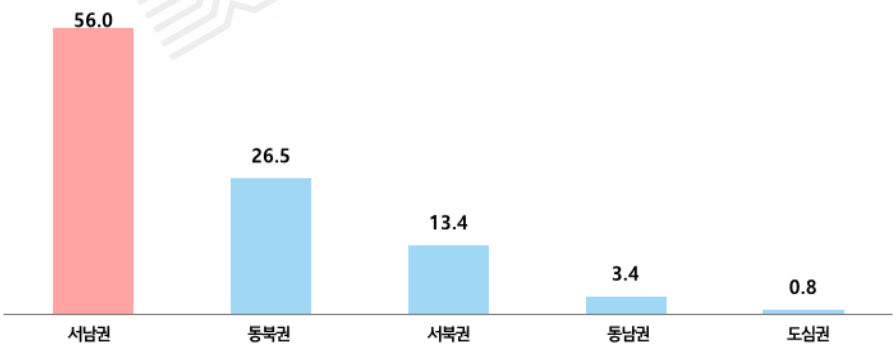
다른 한편, 다양한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는 문래창작촌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문래동 작가 중 68.5%가 '예술가의 이탈'에 동의하였고, '철공소 이탈'에 86.3%, '술집, 카페 등 상업적 공간 증가'에 9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예술가들은 '철공소와 예술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을 가장 원했고, 필요한 시설로는 '전시장 및 공연장', '화장실/가로등 등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 순이었다.

[표 3] 문래동 발전에 필요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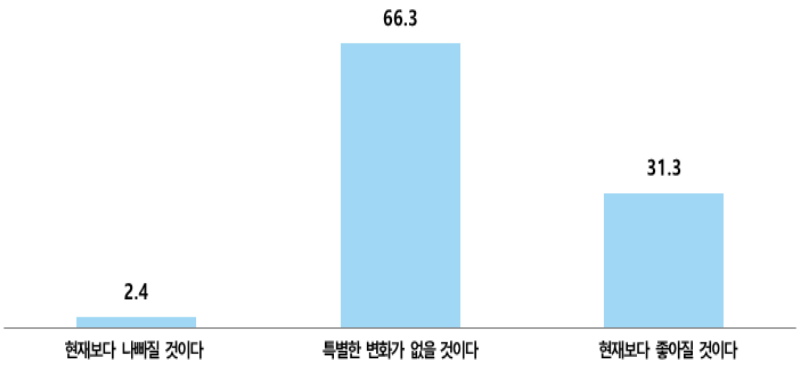
구분	1순위		1+2+3순위	
	사례 수(명)	비율(%)	비율(명)	사례 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및 공연장	43	35.0	71	19.6
화장실/가로등 등 생활편의시설	24	19.5	55	15.2
예술가들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13	10.6	51	14.0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실	11	8.9	38	10.5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	7	5.7	21	5.8
예술인을 위한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7	5.7	32	8.8
주차장	7	5.7	25	6.9
작품 혹은 굿즈 등의 2차 창작물 판매공간	5	4.1	50	13.8
지역 안내센터	4	3.3	16	4.4
기타	2	1.6	4	1.1
합계	123	100	363	100.0

문화여건 개선 위해 시민·예술·지역·미래 수요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필요해

서울시는 서남권의 문화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서서울미술관〉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서남권 주민 스스로도 '서남권의 문화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답하고 있고,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권역 – 서남권 평균



[그림 4] 서남권 문화환경 변화 기대감 – 서남권 평균

서남권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려면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각 자치구 단위 확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필요한 시설을 추계한 다음, 전략적 검토하에 시설을 배치·확충하여 문화적인 지역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확충 대상시설은 단기적 수요가 아닌 시민·예술·지역·미래 수요 등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남권은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동시에 예술시설, 지역 고유성에 대응하는 시설, 디지털 산업지역으로서 현재 여건을 고려한 미래의 문화시설이 모두 부족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대응하면 그 수는 늘겠지만, 지역 전반의 여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검토하에 문화환경을 개선해야

서울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문화시설은 단지 서남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남권을 살펴보았지만, 동북권과 서북권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 요구되는 시설도 다양하다. 이에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현재 여건을 검토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하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각 권역의 특성화 및 문화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종합적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시설은 단지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가와 다양한 창조인력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지역과 시민이 호흡하는 공간이다. 그런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 현재가 아닌 미래를 고려한 종합적 계획하에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